

쿠팡이츠서비스, 배달파트너에 아이스커피 15만개 지원 혹서기 안전 지원 강화

2026. 7. 31.



쿠팡이츠서비스, 배달파트너에 아이스커피 15만개 지원 혹서기 안전 지원 강화

- 쿠팡 전액 부담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15만장 무상 지원 배달 안전 협약 후속 조치
- 컴포즈커피 전국 3100여개 매장에서 사용 가능 시원한 매장 공간에서 휴식 재충전
- 전국 단위 쉼터, 여름용품 지원, 무상 안전점검 등 무더위 대응 안전 지원 지속 강화

2026. 07. 31.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혹서기 배달파트너들의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안전 지원에 나선다.

먼저 쿠팡이츠서비스는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컴포즈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15만장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주요 배달 관련 기업들이 함께 체결한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쿠팡이츠서비스가 전액 부담해 무상 제공한 커피 교환권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배달 활동 기준을 충족한 배달파트너에게 지급된다.

배달파트너들은 전국 3100여개 컴포즈커피 매장에서 교환권을 사용할 수 있다. 무더위 속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파트너들이 시원한 음료와 함께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ES는 커피 교환권 지원 외에도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기상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가 컴포즈커피 매장에서 휴식 중이다

우선 전국 50여개 지자체 이동노동자 쉼터에 폭염 대응 용품을 비치해 배달파트너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협력해 전국 140여개 정비센터를 에어컨과 음료가 마련된 냉방 쉼터로 운영하며 배달 동선 인근에서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 행사를 진행해 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달파트너 앱을 통해 폭염·폭우 대비 안전수칙과 기상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배달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파트너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배달파트너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